



## 대학생 취업 · 진로지도의 과제와 대안

정근모 | 호서대 총장

최근 통계(2001년 8월)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층(20세~29세)의 실업률은 6.4%로 전체 실업률 3.4%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을 반영해 보이고 있다. 실제 대학생 취업담당자가 느끼고 있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 경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격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당국자나 대학생들 자신들에게는 현실적이고도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최근 개최된 대학총장회의에서는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가 같이 참석하여 대학생의 취업 지도와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토론도 가졌다. 또한 많은 여론매체들이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을 보도하고 있고, 대학입학 예정자나 재학생들이 취업이라는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염두에 두고 전공 선택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을 넘어선 취업 위주의 과외 교육을 받는 현상이 과거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제가 된다면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책임자들은 대학생 취업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은 대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교육 시스템의 문제이며 나아가 사회문제까지 비약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러

나 과거에 있었던 대학 졸업자의 취업 문제가 경제발전과 함께 자연적으로 해소되었던 선례,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이 OECD 평균 청소년 실업률 11.8%(OECD, 2000 Employment Outlook) 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볼 때 결코 해결 불능의 과제이기보다는 오히려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긍정적 도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경제 시스템이 지식기반산업의 대두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어 가고 있고, 직업 자체의 내용과 직업인의 경력관리 모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을 피상적이고 단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문제해결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 I. 대학 졸업자 취업난의 원인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은 일반적인 청년층의 취업난과 동일한 원인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자체가 최근에 제기한 특수한 원인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최근에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나 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 IMF 금융위기로 노출된 20세기 말의 산업구조의 취약점은 전반적인 경기하락과 구조조정에 따르는

“

IMF 금융위기로 노출된 20세기 말의 산업구조의 취약점은  
전반적인 경기하락과 구조조정에 따르는 대량 고용인구의 수요 감소로 나타났다.  
기업은 이미 고용되어 있고 능력이 검증된 기고용자의 활용을 보호하는 반면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신규 취업자의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대량 고용인구의 수요 감소로 나타났다. 기업은 이미 고용되어 있고 능력이 검증된 기고용자의 활용을 보호하는 반면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신규 취업자의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0, 40대의 장년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통계를 본다면, 기업의 경기하락에 대응한 채용 관행이 대학 졸업자의 취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격변하는 최근의 경기와 치열한 시장 경쟁 및 기업퇴출이 상시화되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대응 가능한 고용정책'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가능한 한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과포화 상태인 기존 인력공급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고용정책을 쓰고 있다. 따라서 취업 후 상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대학 졸업자들의 채용보다는 쓸 수 있는 경력을 갖고 있는 경력 직원의 채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직업의식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직업훈련에 따른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증명된 경력자들은 높은 수요가 있는 반면 상당한 초임 교육비용을 요하는 일반 대학 졸업자들의 임용에는 한계적인 선호도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반 원인은 경기회복에 따른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적성과 능력을 갖춘 신규 대학 졸업자의 수요가 실체화되면서 자연소멸될 수 있다. 즉, 과거 우리 경제에서 체험하였던 급격한 해외시장 개척이 국내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을 급속히 소멸시켰듯이 세계 경제의 회복과 국내 경제의 새로운 활성 요인이 대학 졸업자의 수요를 다시 증폭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 문제에는 이러한 일반 원인과 함께 특수한 원인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 원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지난 30년간 급속히 증가해 온 대학 진학률의 상승이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되리라는 것이다. 1970년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6.9%이었다. 고교 졸업생의 다수가 교육과정을 끝마치고 취업 전선에 나섰으며 소수의 졸업생들만이 대학에 진학하는 서구식 교육·취업 패턴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대학 진학률이 20%를 약간 상회하는 선별적 대학교육을 시행하면서도 고도의 국가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은 그 후 급속히 증가하면서 2000년도에는 6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많은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상회하는 대학 진학률이며(미국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과 비슷하다), 이러한 기존 대학교육의 고도 확장은 우리 산업의 지식고도화 수요와는 내용적으로 상충되는 현상을 빚어냈다. 우리 경제는 '8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위주로 팽창하다가 '90년대 말부터는 IT 산업 위주의 신규 산업활동이 급속히 활발해

졌다. 따라서 제레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 수요와 연계되어 있던 대학교육은 계속 팽창되었지만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 지식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 졸업자의 수는 크게 수요에 못 미치는 등 수요와 공급에 차질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학교육은 팽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육 내용은 시장이 요구하는 수요와는 질적인 괴리가 생성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교와 시장과의 연계가 미흡하였고, 이는 즉시 대학 졸업자의 시장 적응을 위한 재훈련과 마찰적인 취업난을 야기시킨 것이다.

또 하나의 특수 요인은 우리나라 고학력 소지자들의 취업 개념이 신 경제의 운영 패턴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과 비슷한 미국에서는 고학력 소지자들의 직업에 대한 대응 자세가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다. 즉 새로운 경제의 변화를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 사회 자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자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서인지 신규 대학 졸업자가 즉시 취업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력보다는 대학교육을 종료한 시점에서 스스로의 장래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자발적인 실업 상태의 관망 시간을 갖는 것을 좋게 평가하는 사회분위기가 잠재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단순한 기능교육으로 운영하지 않으려는 미국 대학교육의 철학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대학교육에서의 전문교육은 대학보다는 대학원에 있는데, 이는 지식산업시대를 예견한 전문인재 양성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 경제와 사회운명을 주도하는 변호사·의사·과학기술자·경영자 모두가 철저한 전문교육을 시행하는 대학원 교육을 받아야 그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 대학 졸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문직을 찾으려는 우리나라의 취업 선호 개념은 이마 다가온 지식기반사회의 전문성 수요와는 질적인 괴리가 있고 새로운 고등교육과 전문성 취업이라는 관계

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대안모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본질과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 구도의 특성을 연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학 졸업자의 신규채용을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기존 산업체에 촉구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고 시장 경제 체계 하에서는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대학교육을 수적으로만 팽창시킨 것은 과거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더 거론할 가치는 없으나, 새로운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그 오류를 깊이 반추하면서 대학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은 대학교육과 대학원교육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하며 그들이 국가발전에 올바른 기여가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도 아래서 대학 졸업자의 취업지도 또는 진로지도를 병행하는 것이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대학 졸업자 취업난의 일반 원인과 특수 원인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II. 대학생들의 취업·진로 지도의 기본 방향

대학 졸업자들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진로 선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봉사할 수 있고 만족감을 향유할 수 있는 전문성 위주의 고유 직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전문취업 또는 전문교육을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취업을 택함으로써 차후의 전직·전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험 축적의 취업이다. 또 하나의 대안은 취업 전선에 즉시 참여하지 않고 1, 2년 동안 삶에 대한 구상과 장기 진로개척을 위한 사회봉사적 또는 개인적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다. 앞으로

“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대안모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본질과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 구도의 특성을  
연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변화에 인식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대학교육을 수적으로만 팽창시킨 것은  
과거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더 거센 항거는 없으나, 새로운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그 오류를 깊이 반추하면서 대학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의 고용시장이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으로 변하고 있으며, 5~6년 이상의 전직이 예상되는 평생구도에 있어서는 1~2년의 능력 축적과 삶의 기본 틀을 만드는 시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용한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률의 상향만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새로운 대학 졸업자들에게 전문성 교육·경험 축적·사회적응의 시기를 마련하는 데 대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육자·정부·사회의 방향 합의와 실천 대책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에 따른 대학생들의 취업·진로 지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대안모색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가 고려할 취업·진로 지도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로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은 철저한 기본교육이라는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이미 지적인 대로 전문가 교육은 대학교육을 넘어서 대학원 교육으로 그 역할 분담이 바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가 교육은 과도기적인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법률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인성·대학·교양 등 기본교육이 철저히 시행된 후에야 전문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본교육은 소홀히 하고 시험 위주의 편협된 전문성 판단에 따른 법률전문가 인정제도 때문에 많은 인재들의 희생과

비능률적인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대학 진학률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법률전문가 양성을 전문대학원에 맡기고 있으며—전문대학원 출신의 자격 취득률은 거의 자동적이다—철저한 기본교육을 받은 대학 졸업자만이 전문대학원 진학이 가능하게 하였다. 반면 전문대학원들의 자체 품질 보장은 철저한 검증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자격 획득·자격 유지를 위한 검증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문가 생애를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기본교육의 중요성과 고도의 선별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의학·법률학·경영학·과학·공학 등 고도의 전문성 없이는 고용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분야에 상응할 만한 교육 투자와 헌신이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둘째로 지식기반사회의 변화는 급속히 가속화될 것이다. 이 변화는 분야별 지식의 심화현상뿐만 아니라 학제간에 이루어지는 세계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졸업생들이 대학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은 지식의 심도화에 따르는 고유의 지식기반의 강화뿐만 아니라 학제간의 융합(Fusion), 합성(Synthesis), 연계(Networking), 통합(Integration) 및 상호의존(Inter-dependency)에 대하여 놀라지 않고 적

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것이다.

대학교육이기 때문에 이 소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직업인이 되어야 함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대학교육의 교과과정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일반 취업이나 향후 진로선택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진직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자생력이 강한 직업의식 등 장차 도전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한 구직 태도와 초임 취업에 대한 개념 확립을 취업·진로지도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자세·의식을 갖게 되면 안정적인 대기업·공기업을 선호하는 종래 의식에서 초월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산업에서의 도전받는 취업에 적극성을 띄게 되고 이 분야의 인재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도 향상시킬 것이다.

셋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사회와 산업은 이미 국제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계 시장과의 연계나 국제화를 통한 해외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88올림픽이 한국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렸을 뿐 아니라 세계의 존재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올해의 월드컵 행사도 전세계 경제 사회 활동에 있어서 한국의 젊은 세대가 역할 담당을 할 수 있다는 홍보와 함께 전세계의 수요자들이 한국 산업의 공급능력을 요구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진로지도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가일층 전세계를 내다보는 식견과 능력을 기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국제화는 우리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절대적인 기회이며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추세인 것이다. 과거 유럽이 향유하였던 세계 운영 주도권이 북미로 옮겨진 것처럼, 이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대학교육을 팽창시키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우리나라에 가능성이 제시

되고 있음을 학생 지도자나 학생들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취에 만족하고 내향적이 된다면 우리는 계속적인 취직난과 비효율적인 경제운영 대책 속에서 악순환을 밟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국제화 추세를 적극 활용하고 세계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도록 대학생들의 기본 교육을 강화하여 대학 졸업생들의 일시적인 취업난을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Ⅲ. 대학 졸업자 취업과 진로를 위한 대안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난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 진로지도를 하기 위하여 학생 자신들과 대학, 또한 산업계와 정부가 같이 고려하여 실천에 옮겨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본다.

첫째로 대학생들이 과거의 취업 전략에서 탈피하여 대학 생활 중 부단하게 취업 및 진로지도를 받으면서 현실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학마다 여건에 맞추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형식적인 취업지도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수진이 학생 취업과 학생 진로지도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노력의 대가로써 상당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즉 대학 단위의 취업률 평가뿐만 아니라 학부별·전공별 취업률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단적으로 학생 취업을 선도하고 학생 진로에 교수들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 업적주의 연봉제가 도입되고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여 주듯이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과 대학원 진학률에 공헌하고 있는 교수들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지표화하여 업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공헌뿐만 아니라 전공별·학부별로 집단적인 업적을 개인평가에 반영시킴으로써 교수와 학생 간, 교수와 교수 간, 학생과 대학 간의 협력관계를 고취시킴이 중요하다. 미래를 계획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경험과 지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학이 교육기관인 만큼 교수들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동을 더욱 강조하고, 그 산학협동에 대학 3, 4학년 학생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대학 생활 중에 인턴사원으로 경험 축적을 하면서 개별적 기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상호협력적 산학협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시고용을 선호하고, 인력 운영의 신속성이 중요시되는 기업에서는 장기적 고용책임을 지어야 하는 정규직원 수를 최소화하고, 임시고용을 전제로 하여 방학중 학생고용·산학협동활동에서의 학생 활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들의 산학협동활동을 권장하고 그 산학협동활동에 취업 대상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기업과 대학 간에 주고받는 협력활동이 활발해져야 그에 따른 대학 졸업자 취업지도도 자연스럽게 진척될 것이다.

셋째로 사회가 인증하는 전문분야에서의 전문성 인증제도와 연관된 전문대학원 제도를 조속히 추진하여 세계화·국제화의 틀 속에서 세계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전문가 양성제도를 육성해야 하겠다. 전문가들의 의견 조화가 필요하겠지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문대학원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 시장에 나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국내에서 수

용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외국 전문대학원과의 공동운영도 가능하며, 국내적 전문성 인증제도도 전문대학원과 연계시킨다면 현재 만연되고 있는 시험 위주의 자격검증제도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고 광범위한 기초품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문교육의 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현재 유동적인 전문가지향 대학 졸업생들을 흡수함으로써 앞으로 증가되는 수요의 만족과 더불어 새로운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국내 정착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과감한 추진력과 전문가집단의 미래를 향한 집단이기주의의 순화가 있어야 하겠다. 의료분야, 과학기술분야, 경영분야, 법률분야에 있어서 전문대학원의 내용있는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한다.

넷째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진국에서 OECD가입 선진국으로 1세대에 발전한 나라로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주시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숙명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화와 국제화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세계를 향한 우리 젊은이들의 활약을 촉구해야 한다. 최근 대학 졸업자의 증가와 취업률의 하향 추세는 많은 교육을 받은 대학 졸업자들이 1년, 2년, 3년 세계화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공황이 일어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한 뉴딜 정책의 사회봉사단은 나중에 국가발전의 큰 일꾼들이 되었으며, 케네디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봉사단은 내향적인 미국을 국제적 지도 국가로 부상시키는 데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21세기를 주도할 나라로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더욱 국제 감각을 갖게 하고 국제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

우리 사회의 문화는 지식의 가치: 존중하는 전통을 지녔을 뿐 아니라  
두뇌자원 역시 풍부하다.

또한 최근 경험한 세계화 및 국제화를 통해

이루어진 경제발전 모델은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가 시작되는 현재 가장 필요한 자원이다.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다양한 경험이고 실험적인 실천이다.

이제 더 이상 취업 문제를 직업을 갖고 못 갖는 단순한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취업은 곧 새로운 삶의 형태를 영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

하겠다. 이를 위하여 직업인으로서, 봉사인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현재 취업난으로 시간을 얻은 젊은 대학 졸업자들에게 '국제청년봉사단 (International Youth Service Corps)을 통한 봉사'와 경험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다. 국제청년봉사단은 무보수이나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고 또한 실지로 해외에 나가 주어진 기간 동안에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세계화, 국제화되는 세상에서 지도자로서 일할 품성을 기르게 한다. 또한 봉사를 통한 직업 체험 축적으로 봉사 후 기업에서 더 유용한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잠정적 취업 준비 기간으로도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국제 청년 봉사단은 정부가 직접 나서고, 기업이 후원하고, 대학이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정부·기업·대학·학생의 연합체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10만 명의 젊은 대학 졸업자들이 전세계에서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년봉사단원으로 일한다면 이것은 다만 그들의 취업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일도 될 것이다.

#### IV. 미래를 설계하는 개척정신

대학 졸업자의 취업 및 진로지도 과제에서 반드시

시 생각해야 할 명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단순한 취업 문제로만 간주하여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21세기 한국과 한민족이 나아가갈 방향에 중요한 문제를 간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은 단순한 위기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위기를 통한 새로운 기회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본격적인 세계화, 아세아권의 부상 등 21세기는 지금 우리 민족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와 문화는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통을 지녔을 뿐 아니라 두뇌자원 역시 풍부하다. 또한 최근 경험한 세계화 및 국제화를 통해 이루어진 경제발전 모델은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가 시작되는 현재 가장 필요한 자원이다.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다양한 경험이고 실험적인 실천이다. 우리는 여기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어떤 것이 풍부한 자산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을 가늠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지식으로 무장된 개척정신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취업 문제를 직업을 갖고 못 갖는 단순한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취업은 곧 새로운 삶의 형태를 영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 변화와 함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변화라 하겠다. 대학은 학문의 발전을 밑거름으로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에 대해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수의 역할은 새삼스레 중요하게 부각된다. 교수가 가르치는 경험과 지혜는 미래를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놓쳐선 안될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취업 대상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호 협력적 산학협동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봉사의 덕목에 대해 충분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봉사는 다방면의 경험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라 하겠다. 직업인과 봉사인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취업난으로 소중한 시간을 얻은 젊은 대학 졸업자들에게 국제적인 봉사단체를 통해 봉사와 경험축적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그저 취업을 도와주는 행정적 조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의 청사진을 새

롭게 만드는 장기적인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는 풍부한 두뇌자원을 기반으로 아시아권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선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취업 문제에 대한 초조함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준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책임자와 정책 수립자들은 대학생 취업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이며 범세계적인 안목 하에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 정근모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Michigan 주립대학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Princeton대학에서 박사후(Postdoc.) 과정을 수료하였다. M.I.T. 대학 핵공학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원장 및 교수, New York 공과대학 핵공학과 교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 사장,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하였다. 현재 호서대 총장으로서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헤비타트) 이사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회원, 미국 국립공학한림원 회원, 스웨덴 왕립공학한림원 회원, 세계원자력한림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Techno-economic Feasibility Study of Floating Nuclear Plants*, 『21세기로 가는 길』, 『과학기술위협과 통제시스템』 등 수 편이 있다.

